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(제109-2호)

여론속의 여輿론論

기획: 코로나19 22차 인식조사
(12월 2주차)

2020. 12. 23.

담당자 이소연 사원

전화 | 02-3014-1062
e-mail | lee.sy@hrc.co.kr

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-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.
-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.
-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.
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,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.
- 정가지표-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.
- 정가지표는 국가, 사회,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.
-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.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,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.
-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.

운영책임

정한울 전문위원

전화 | 02-3014-1057
e-mail | hw.jeong@hrc.co.kr

조사실무

이동한 차장

전화 | 02-3014-1060
e-mail | dhlee@hrc.co.kr

이소연 사원

전화 | 02-3014-1062
e-mail | lee.sy@hrc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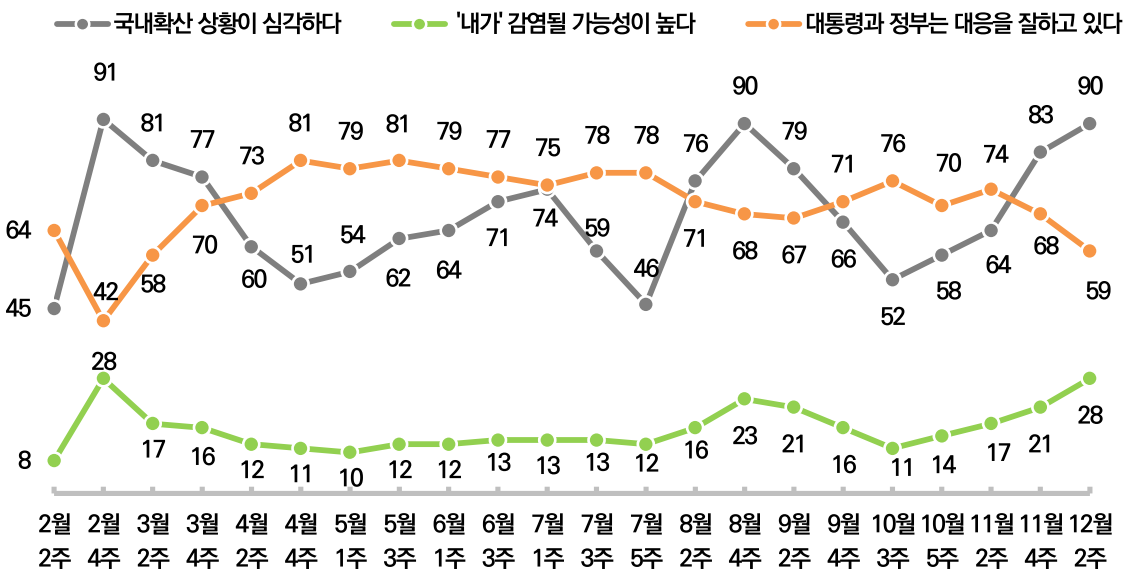
1 코로나19 상황 인식

국내 확산 상황 심각하다 90%, 11월 넷째 주 대비 7%포인트 상승 대통령과 정부가 대응 잘하고 있다 59%, 지난 조사 대비 9%포인트 하락

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,000명을 넘어서면서,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 역시 2주 전 대비 7%포인트 상승한 90%로 조사되었다. 이는 코로나19 1·2차 대유행 직후와 동일한 수치이다. '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'는 응답도 2주 전 대비 7%포인트 증가한 28%로 1차 대유행 직후인 2월 넷째주와 동일한 수준까지 높아졌다. 대통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59%로 2주 전보다 9%포인트 하락, 3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% 아래로 떨어졌다.

국내 확산 상황 심각성과 감염 가능성 모두 2주 전 대비 상승, 대통령과 정부 대응 잘한다는 응답 59%, 2주 전 대비 9%포인트 하락

(단위: %)



질문: · (국내 확산)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· (감염 가능성) 귀하께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
· (정부 대응 평가)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비고: '매우 긍정(매우 그렇다)' + '긍정(그런 편이다)' 만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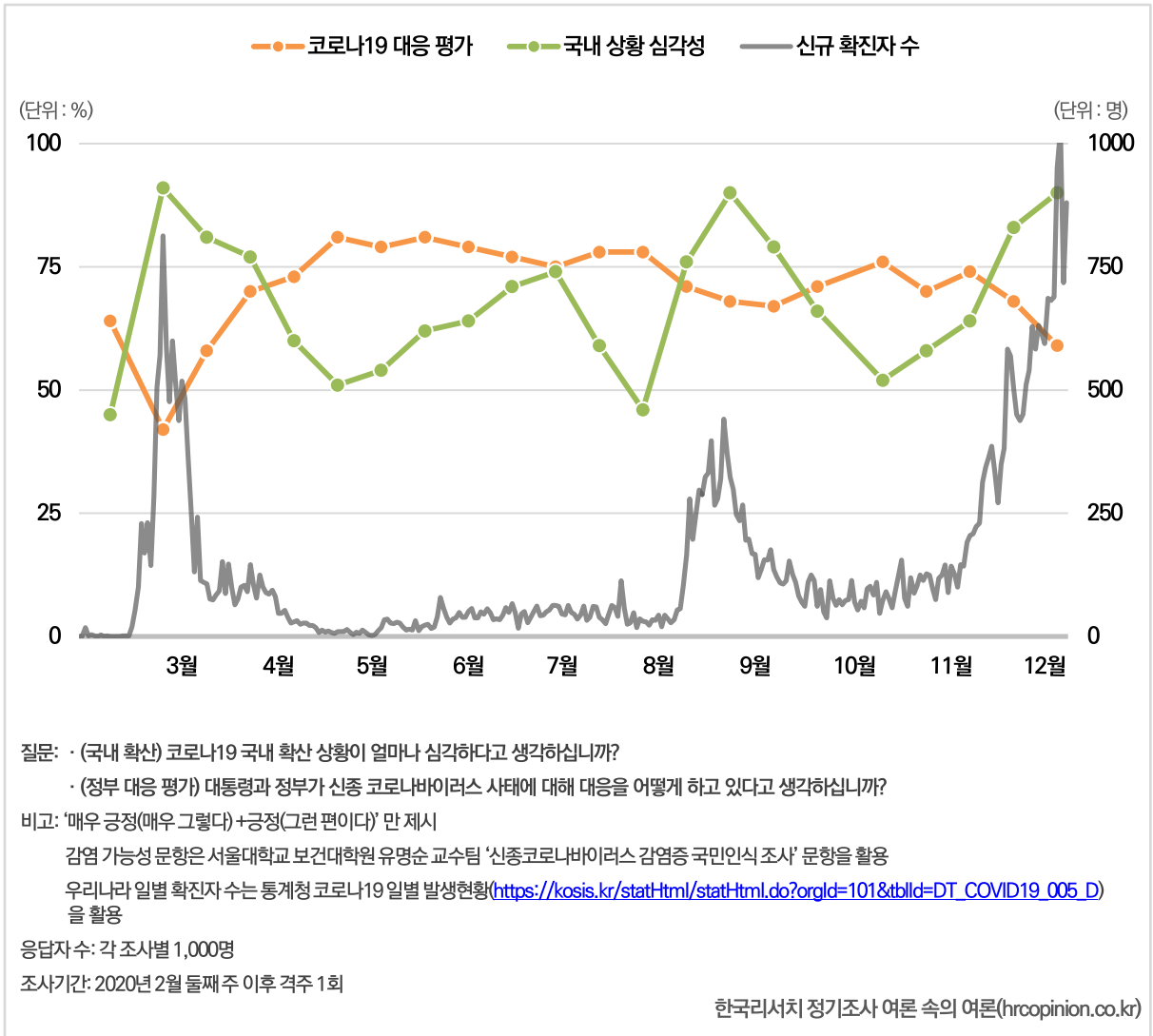
감염 가능성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'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인식 조사' 문항을 활용함

응답자수: 각 조사별 1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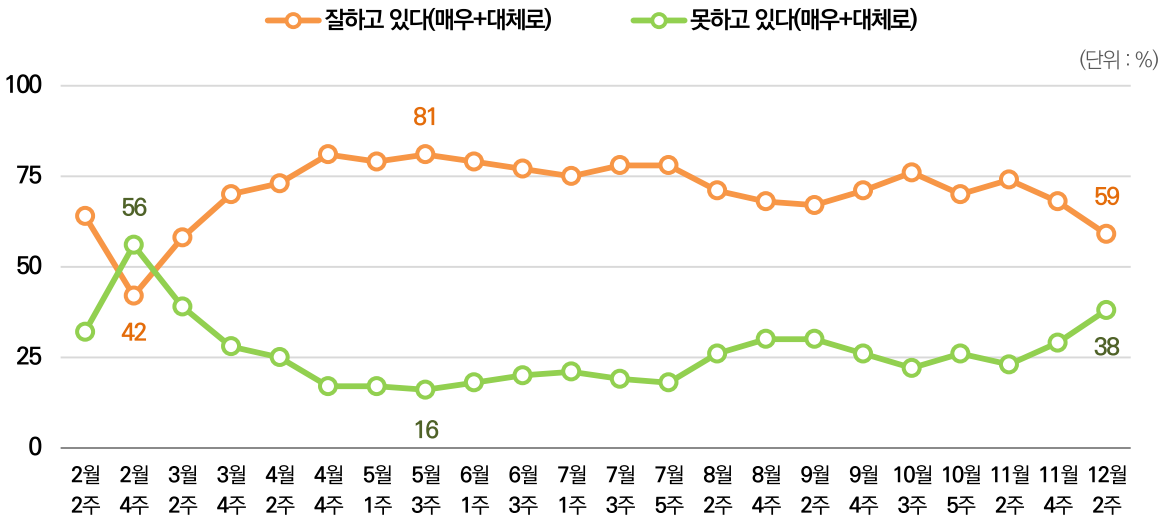
조사기간: 2020년 2월 둘째 주 이후 격주 1회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일별 신규 확진자 수와 대응평가, 상황인식 추이



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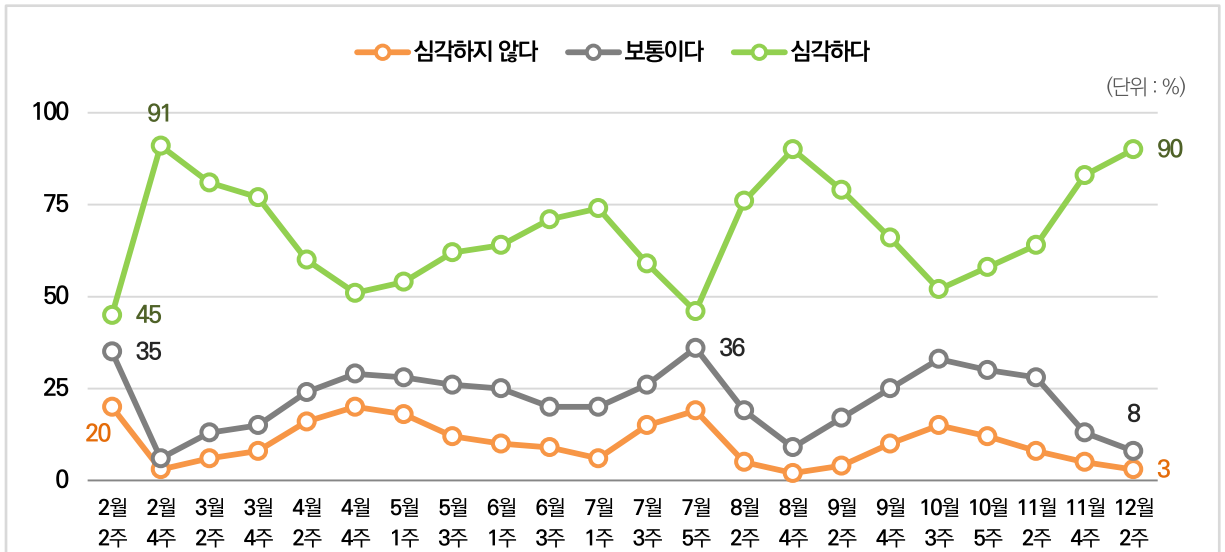
차수	조사기간	매우 잘하고 있다	대체로 잘하고 있다	잘하고있다 (매우+대체로)	대체로 못하고 있다	매우 못하고 있다	못하고있다 (매우+대체로)	모르겠다	계
1차	2월 11일~2월 13일	19	45	64	20	13	32	4	100
2차	2월 28일~3월 2일	14	28	42	23	33	56	2	100
3차	3월 13일~3월 16일	21	37	58	23	16	39	3	100
4차	3월 27일~3월 30일	30	39	70	16	11	28	3	100
5차	4월 10일~4월 13일	35	38	73	17	9	25	2	100
6차	4월 24일~4월 27일	39	42	81	11	6	17	2	100
7차	5월 8일~5월 11일	36	44	79	11	6	17	4	100
8차	5월 22일~5월 25일	37	44	81	11	5	16	3	100
9차	6월 5일~6월 8일	30	49	79	12	6	18	3	100
10차	6월 19일~6월 22일	32	45	77	13	7	20	3	100
11차	7월 3일~7월 6일	28	47	75	14	7	21	3	100
12차	7월 17일~7월 20일	32	46	78	12	7	19	3	100
13차	7월 31일~8월 3일	29	49	78	12	6	18	3	100
14차	8월 14일~8월 17일	26	46	71	16	10	26	3	100
15차	8월 28일~8월 31일	23	44	68	18	12	30	2	100
16차	9월 11일~9월 14일	24	44	67	19	11	30	3	100
17차	9월 25일~9월 28일	27	43	71	17	9	26	4	100
18차	10월 16일~10월 19일	31	44	76	15	7	22	2	100
19차	10월 30일~11월 2일	22	48	70	18	9	26	3	100
20차	11월 13일~11월 16일	31	43	74	15	8	23	3	100
21차	11월 27일~11월 30일	22	46	68	18	11	29	3	100
22차	12월 11일~12월 14일	17	42	59	23	15	38	2	100

질문: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국내 확산상황 심각성 인식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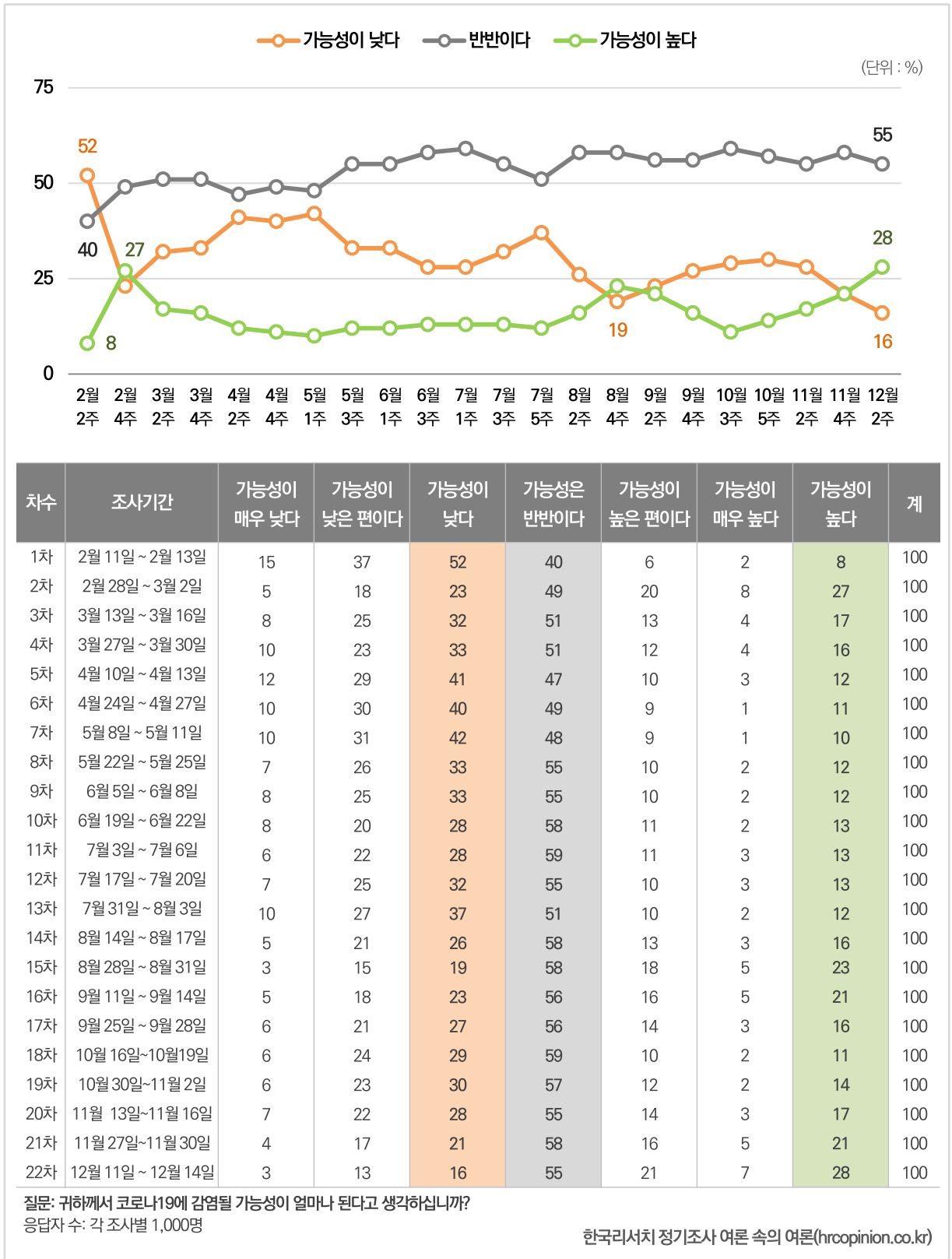


차수	조사기간	전혀 심각하지 않다	심각하지 않은 편이다	심각하지 않다	보통이다	심각한 편이다	매우 심각하다	심각하다	계
1차	2월 11일~2월 13일	2	19	20	35	39	6	45	100
2차	2월 28일~3월 2일	1	3	3	6	44	46	91	100
3차	3월 13일~3월 16일	1	5	6	13	60	21	81	100
4차	3월 27일~3월 30일	1	7	8	15	53	24	77	100
5차	4월 10일~4월 13일	2	14	16	24	48	12	60	100
6차	4월 24일~4월 27일	3	17	20	29	41	10	51	100
7차	5월 8일~5월 11일	1	16	18	28	45	9	54	100
8차	5월 22일~5월 25일	1	11	12	26	51	10	62	100
9차	6월 5일~6월 8일	1	9	10	25	56	9	64	100
10차	6월 19일~6월 22일	1	8	9	20	54	17	71	100
11차	7월 3일~7월 6일	0	6	6	20	59	14	74	100
12차	7월 17일~7월 20일	1	13	15	26	47	12	59	100
13차	7월 31일~8월 3일	2	17	19	36	38	7	46	100
14차	8월 14일~8월 17일	1	5	5	19	54	22	76	100
15차	8월 28일~8월 31일	0	2	2	9	55	34	90	100
16차	9월 11일~9월 14일	1	3	4	17	56	23	79	100
17차	9월 25일~9월 28일	1	9	10	25	52	14	66	100
18차	10월 16일~10월 19일	1	14	15	33	44	8	52	100
19차	10월 30일~11월 2일	2	11	12	30	49	9	58	100
20차	11월 13일~11월 16일	0	8	8	28	50	14	64	100
21차	11월 27일~11월 30일	1	4	5	13	63	20	83	100
22차	12월 11일~12월 14일	1	2	3	8	52	38	90	100

질문: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추이



2 코로나19 자가치료에 대한 인식

자녀가 코로나19 감염시 의료진 판단 하에 집에서 치료받겠다 80% 내가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시 집에서 치료받겠다 2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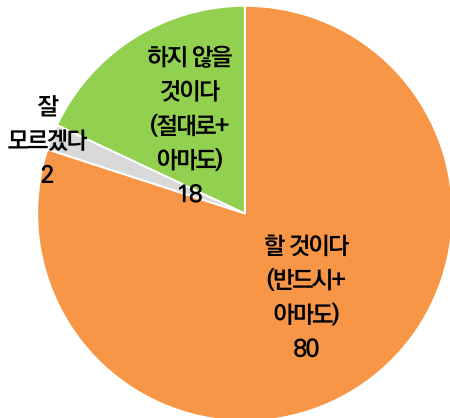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다. 이에 방역당국은 무증상이나 경증이 대부분이며, 격리치료 시 생활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소아 환자부터 자가치료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.

이번 조사에서,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80%가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, 의료진 판단 하에 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자가치료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. 어린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도 같이 격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, 익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치료하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.

다만,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, 자택에서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28%로 생활치료센터 입소(18%)보다는 높았지만, 의료기관(병원)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응답(51%)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.

영유아, 초등학교 자녀 코로나19 확진시, 의료진 판단 하에 자가치료하겠다 80%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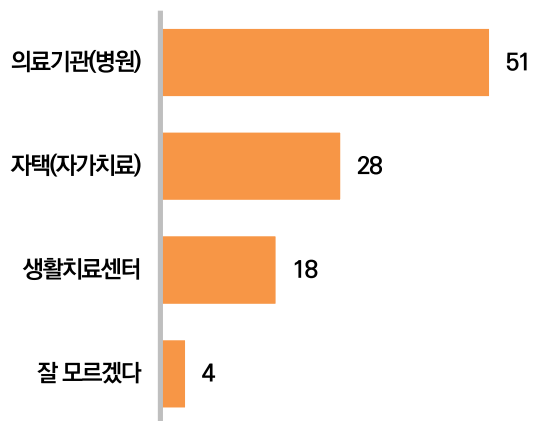
질문: 만약 귀하의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, 의료진 판단 하에 집에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?

표본 수 : 영유아,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응답자 168명

조사기간 : 2020. 12.11 ~ 14

내가 무증상·경증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시 집에서 치료받겠다는 응답은 28%에 그쳐

(단위 : %)



질문: 만약 귀하께서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싶으십니까?

표본 수 : 1,000명

조사기간 : 2020. 12.11 ~ 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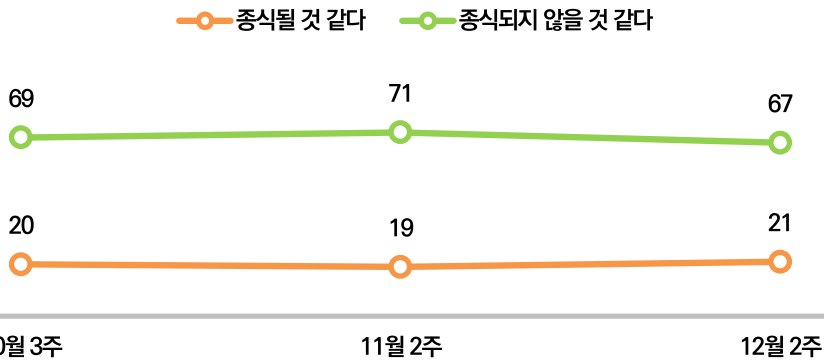
3 코로나19 종식 가능성

응답자 67%, '코로나19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'

12월 11일~14일 진행한 조사에서 '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'는 응답이 67%를 차지했다(종식될 것 같다 21%). 백신 개발 및 상용화가 가까워졌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나,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,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여전히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코로나19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여전히 우세

(단위 : %)



질문: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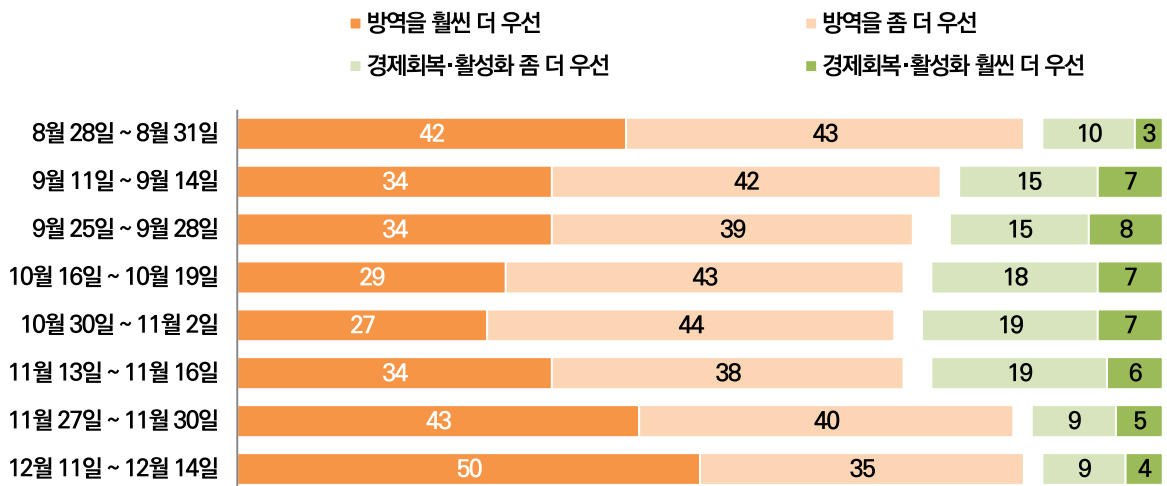
4. 코로나19 방역 vs 경제회복·활성화

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다 85%

2주 전 조사에 이어, 이번 조사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이 경제회복·활성화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이 높았다. 방역이 더 우선이라는 응답이 85%(방역을 훨씬 더 우선 50%, 좀 더 우선 35%)로 경제회복·활성화가 우선이라는 응답(13%)보다 높았다. 3차 대유행 이후 방역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높아졌고,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방역을 훨씬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0%에 육박했다.

코로나19 방역이 경제회복·활성화보다 우선이다 85%

(단위 : %)



질문: 코로나19 방역과 경제회복·활성화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표본 수 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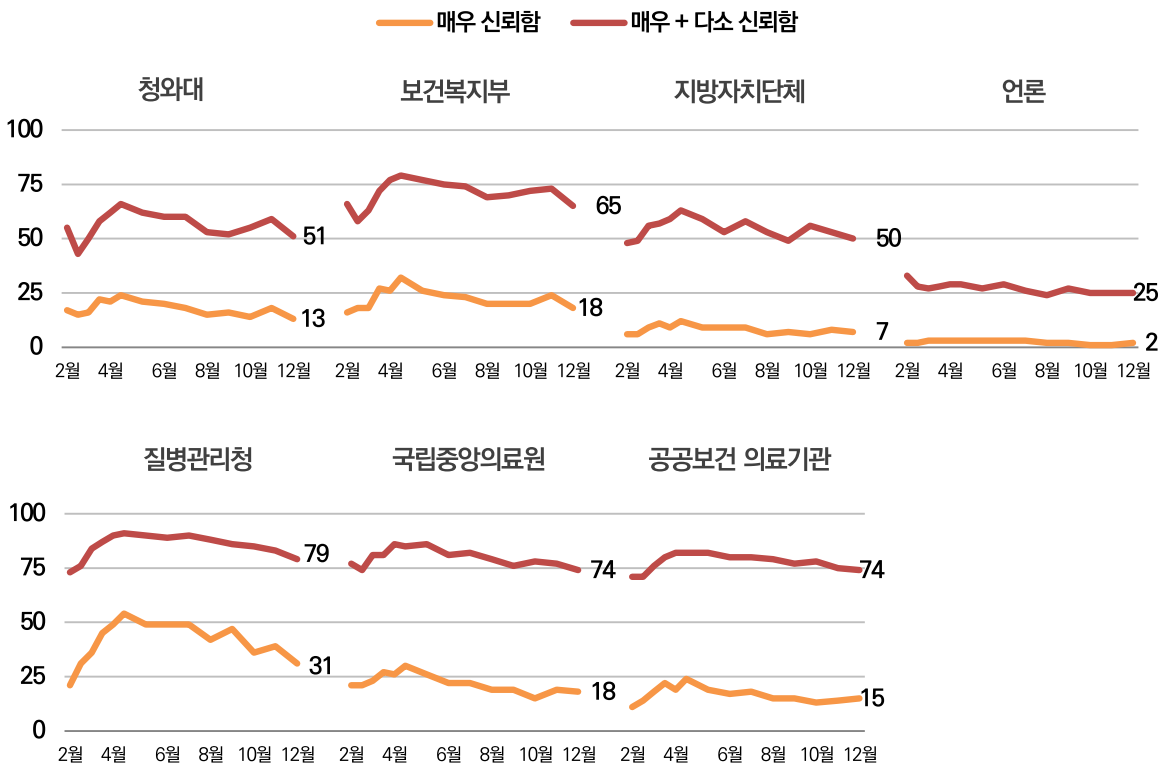
5 코로나19 관련 공적 주체 신뢰도

방역당국 신뢰도 하락

주요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한다는 응답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, 한 달 전인 11월 13일 ~ 16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, 청와대(매우 신뢰한다 18%→13%), 보건복지부(24%→18%), 질병관리청(39%→31%) 등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다.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책임, 그리고 백신 국내 도입 시기에 대한 비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
코로나19 관련 공적 주체 신뢰도 비교

(단위 : %)



질문: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다음의 공적인 주체를 현재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?

비고: 공적 주체 신뢰도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'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인식 조사'를 위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함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2월부터 4월까지의 격주 1회, 이후부터는 월 1회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코로나19 관련 공적 주체 신뢰도 추이

(단위 : %)

차수	조사기간	청와대		보건복지부		지방자치단체		언론		질병관리청		국립중앙 의료원		공공보건 의료기관	
	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	매우 신뢰	매우+ 다소 신뢰
1차	2월 11일 ~ 2월 13일	17	55	16	66	6	48	2	33	21	73	21	77	11	71
2차	2월 28일 ~ 3월 2일	15	43	18	58	6	49	2	28	31	76	21	74	14	71
3차	3월 13일 ~ 3월 16일	16	50	18	63	9	56	3	27	36	84	23	81	18	76
4차	3월 27일 ~ 3월 30일	22	58	27	72	11	57	3	28	45	87	27	81	22	80
5차	4월 10일 ~ 4월 13일	21	62	26	77	9	59	3	29	49	90	26	86	19	82
6차	4월 24일 ~ 4월 27일	24	66	32	79	12	63	3	29	54	91	30	85	24	82
8차	5월 22일 ~ 5월 25일	21	64	28	79	9	58	2	30	55	92	24	84	19	80
10차	6월 19일 ~ 6월 22일	20	60	24	75	9	53	3	27	49	89	22	81	17	77
12차	7월 17일 ~ 7월 20일	18	60	23	74	9	58	3	29	49	90	22	82	18	80
14차	8월 14일 ~ 8월 17일	15	53	20	69	6	53	2	24	42	88	19	79	15	79
16차	9월 11일 ~ 9월 14일	16	52	20	70	7	49	2	27	47	86	19	76	15	77
18차	10월 16일 ~ 10월 19일	14	55	20	72	6	56	1	25	36	85	15	78	13	78
20차	11월 13일 ~ 11월 16일	18	59	24	73	8	53	1	25	39	83	19	77	14	75
22차	12월 11일 ~ 12월 14일	13	51	18	65	7	50	2	25	31	79	18	74	15	74

질문: 코로나19 대응을 하는 다음의 공적인 주체를 현재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?

비고: 공적 주체 신뢰도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'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민인식 조사'를 위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함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6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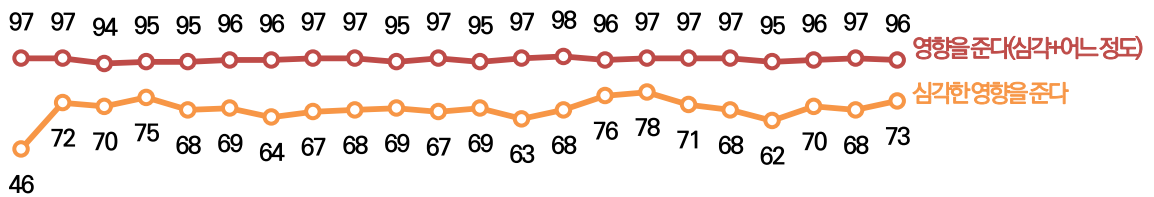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경제 영향 심각 73%, 2주 전 대비 5%포인트 증가 가정 경제 영향 심각 38%, 2주 전 대비 5%포인트 증가

신규 확진자가 1,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73%로, 2주 전 대비 5%포인트 증가하였다.

코로나19가 나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주 전 대비 5%포인트 증가한 38%였다. 이번 조사에서 영향을 준다(심각+어느정도)는 응답은 87%로, 3월 4째 주 이후 80%대를 유지하고 있다. 3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지난 조사에 이어 우리나라와 가정경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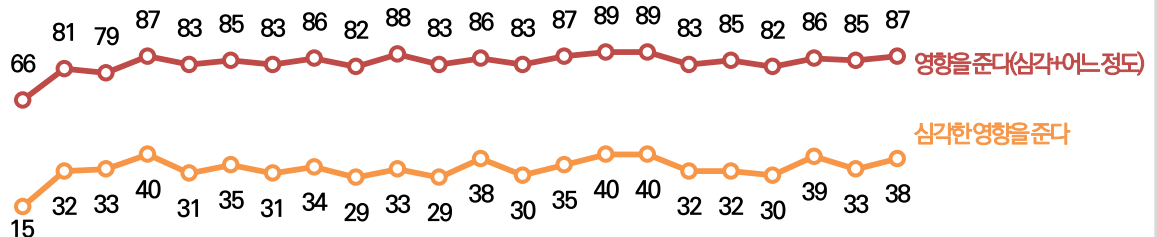
“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” 73%

(단위 : %)



2월 2주 2월 4주 3월 2주 3월 4주 4월 2주 4월 4주 5월 1주 5월 3주 6월 1주 6월 3주 7월 1주 7월 3주 7월 5주 8월 2주 8월 4주 9월 2주 9월 4주 10월 3주 10월 5주 11월 2주 11월 4주 12월 2주

“나의 가정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” 38%



2월 2주 2월 4주 3월 2주 3월 4주 4월 2주 4월 4주 5월 1주 5월 3주 6월 1주 6월 3주 7월 1주 7월 3주 7월 5주 8월 2주 8월 4주 9월 2주 9월 4주 10월 3주 10월 5주 11월 2주 11월 4주 12월 2주

질문: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2월 둘째 주 이후 격주 1회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7

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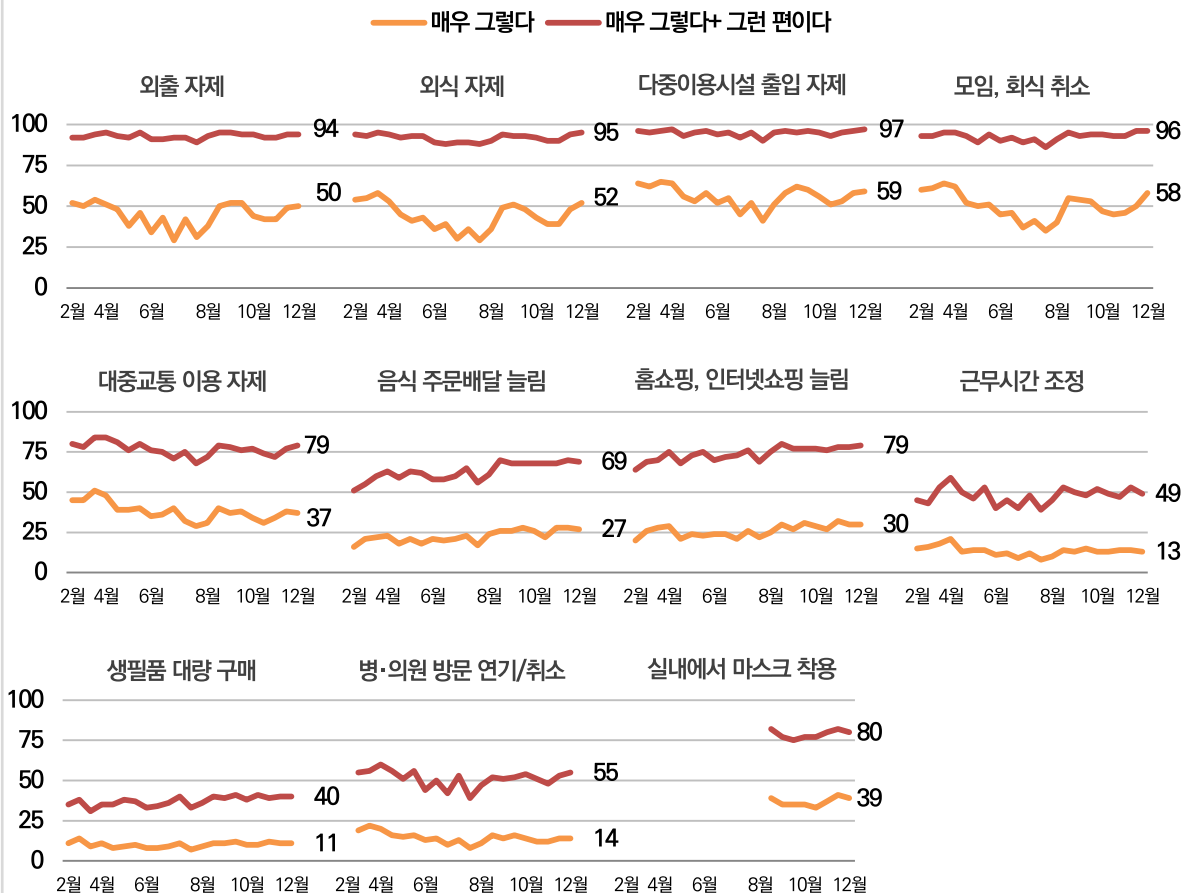
외부활동을 자제했다는 응답은 2주 전에 비해 소폭 증가

11월 말 크게 증가했던 외부 활동을 자제했다는 응답은 12월 2주차 조사에서도 소폭 증가하였다.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모임 금지 등이 적용됨에 따라,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회식을 취소했다는 응답은 58%로 11월 말 대비 8%포인트 상승하였다.

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불안감으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, 적어도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. 생필품을 대량 구매했다는 응답은 연초부터 큰 차이 없이 10% 수준(매우 그렇다 응답 기준)을 유지하고 있다.

11월 넷째 주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세 지속

(단위 : %)



질문: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,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? 다음 각 항목에 답변해 주세요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조사기간: 2월 넷째 주 이후 격주 1회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 추이

(단위 : %)

차수	조사기간	외출 자제		외식 자제		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		모임, 회식 취소		대중교통 이용 자제	
	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
2차	2월 28일 ~ 3월 2일	52	92	54	94	64	96	60	93	45	80
3차	3월 13일 ~ 3월 16일	50	92	55	93	62	95	61	93	45	78
4차	3월 27일 ~ 3월 30일	54	94	58	95	65	96	64	95	51	84
5차	4월 10일 ~ 4월 13일	51	95	53	94	64	97	62	95	48	84
6차	4월 24일 ~ 4월 27일	48	93	45	92	56	93	52	93	39	81
7차	5월 8일 ~ 5월 11일	38	92	41	93	53	95	50	89	39	76
8차	5월 22일 ~ 5월 25일	46	95	43	93	58	96	51	94	40	80
9차	6월 5일 ~ 6월 8일	34	91	36	89	52	94	45	90	35	76
10차	6월 19일 ~ 6월 22일	43	91	39	88	55	95	46	92	36	75
11차	7월 3일 ~ 7월 6일	29	92	30	89	45	92	37	89	31	71
12차	7월 17일 ~ 7월 20일	42	92	36	89	52	95	41	91	32	75
13차	7월 31일 ~ 8월 3일	31	89	29	88	41	90	35	86	29	68
14차	8월 14일 ~ 8월 17일	38	93	36	90	51	95	40	91	31	72
15차	8월 28일 ~ 8월 31일	50	95	49	94	58	96	55	95	40	79
16차	9월 11일 ~ 9월 14일	52	95	51	93	62	95	54	93	37	78
17차	9월 25일 ~ 9월 28일	52	94	48	93	60	96	53	94	38	76
18차	10월 16일 ~ 10월 19일	44	94	43	92	56	95	47	94	34	77
19차	10월 30일 ~ 11월 2일	42	92	39	90	51	93	45	93	31	74
20차	11월 13일 ~ 11월 16일	42	92	39	90	53	95	46	93	34	72
21차	11월 27일 ~ 11월 30일	49	94	48	94	58	96	50	96	38	77
22차	12월 11일 ~ 12월 14일	50	94	52	95	59	97	58	96	37	79

질문: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,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? 다음 각 항목에 답변해 주세요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 변화 추이

(단위 : %)

차수	조사기간	음식 주문배달 늘림		홈쇼핑, 인터넷쇼핑 늘림		근무시간 조정		생필품 대량 구매		병·의원 방문 연기/취소		실내에서 마스크 착용	
	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	매우 그렇다	매우+ 그런 편이다
2차	2월 28일 ~ 3월 2일	16	51	20	64	15	45	11	35	-	-	-	-
3차	3월 13일 ~ 3월 16일	21	55	26	69	16	43	14	38	19	55	-	-
4차	3월 27일 ~ 3월 30일	22	60	28	70	18	53	9	31	22	56	-	-
5차	4월 10일 ~ 4월 13일	23	63	29	75	21	59	11	35	20	60	-	-
6차	4월 24일 ~ 4월 27일	18	59	21	68	13	50	8	35	16	56	-	-
7차	5월 8일 ~ 5월 11일	21	63	24	73	14	46	9	38	15	51	-	-
8차	5월 22일 ~ 5월 25일	18	62	23	75	14	53	10	37	16	56	-	-
9차	6월 5일 ~ 6월 8일	21	58	24	70	11	40	8	33	13	44	-	-
10차	6월 19일 ~ 6월 22일	20	58	24	72	12	45	8	34	14	50	-	-
11차	7월 3일 ~ 7월 6일	21	60	21	73	9	40	9	36	10	42	-	-
12차	7월 17일 ~ 7월 20일	23	65	26	76	12	48	11	40	13	53	-	-
13차	7월 31일 ~ 8월 3일	17	56	22	69	8	39	7	33	8	39	-	-
14차	8월 14일 ~ 8월 17일	24	61	25	75	10	45	9	36	11	47	-	-
15차	8월 28일 ~ 8월 31일	26	70	30	80	14	53	11	40	16	52	39	82
16차	9월 11일 ~ 9월 14일	26	68	27	77	13	50	11	39	14	51	35	77
17차	9월 25일 ~ 9월 28일	28	68	31	77	15	48	12	41	16	52	35	75
18차	10월 16일 ~ 10월 19일	26	68	29	77	13	52	10	38	14	54	35	77
19차	10월 30일 ~ 11월 2일	22	68	27	76	13	49	10	41	12	51	33	77
20차	11월 13일 ~ 11월 16일	28	68	32	78	14	47	12	39	12	48	37	80
21차	11월 27일 ~ 11월 30일	28	70	30	78	14	53	11	40	14	53	41	82
22차	12월 11일 ~ 12월 14일	27	69	30	79	13	49	11	40	14	55	39	80

질문: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,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? 다음 각 항목에 답변해 주세요

응답자 수: 각 조사별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8

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행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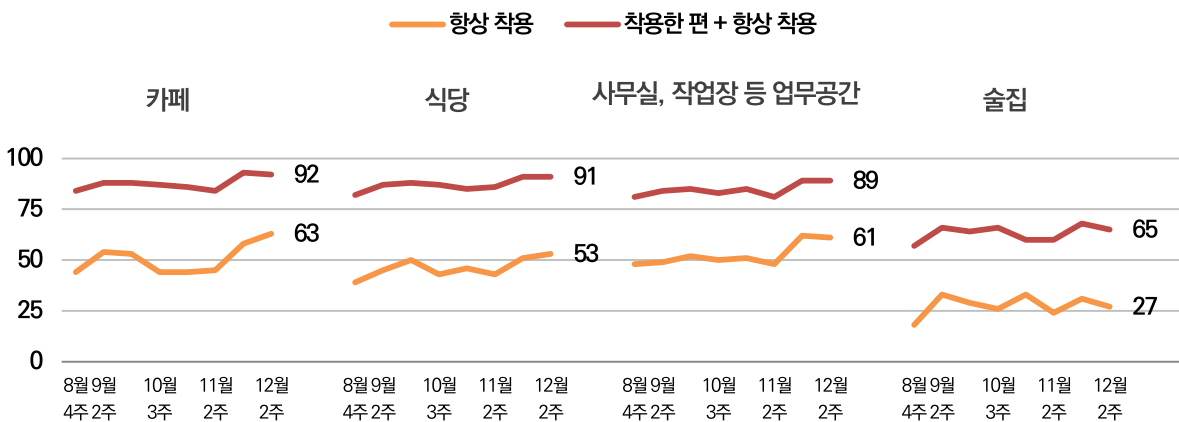
술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응답 65%

카페(92%), 식당(91%), 업무공간(89%)에 비해 현저히 낮아

카페, 식당, 업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응답은 첫 조사를 시작한 8월 넷째 주 이후 꾸준히 80%를 넘어, 지난 조사부터 90%대를 기록하고 있다, 이로써 대다수 방문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 카페와 식당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는 응답은 2주 전에 비해 증가했으나(카페 58%→63%, 식당 51%→53%), 업무공간(62%→61%)과 술집(31%→27%)은 소폭 감소했다. 또한, 술집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응답은 65%로 지난 조사에 비해 3%포인트 감소했다. 술집에서의 마스크 착용률은 카페나 식당, 업무공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.

카페와 식당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는 응답 소폭 증가
술집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했다는 응답은 27%에 그쳐

(단위 : %)



질문: 각각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십니까?

응답자 수: 각 장소에 직전 1주일 간 방문경험 있다고 응답한 사람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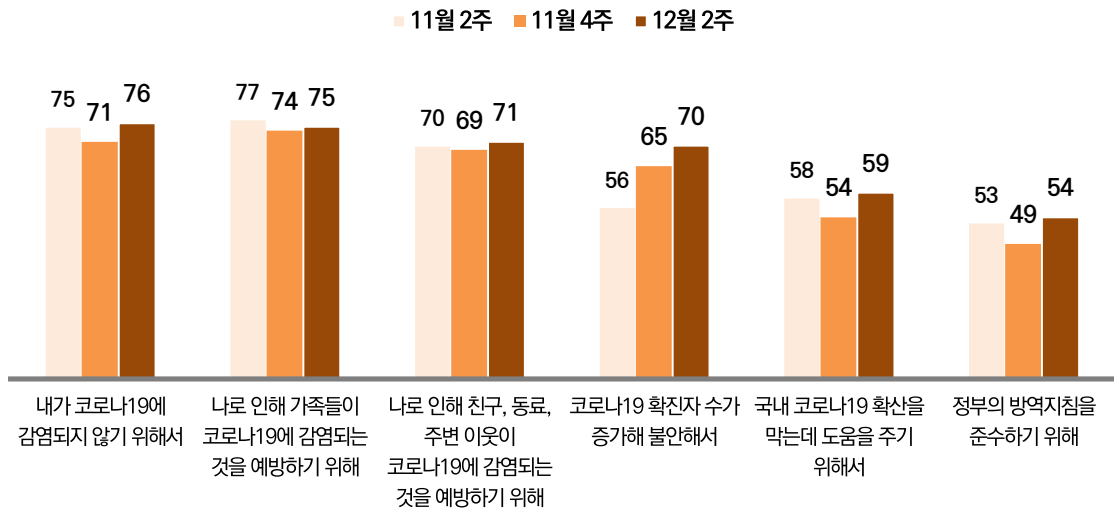
나와 주변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

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유는 나와 가족, 주변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0%대로 지난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. ‘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’, ‘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’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50%대에 머물렀다. 최근 확진자 증가를 반영하듯, ‘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해 불안해서’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 비해 5%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70%를 기록했다.

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유

(단위 : %)

코로나19로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염 예방과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 70%대



질문: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비고: 중복응답

응답자 수: 1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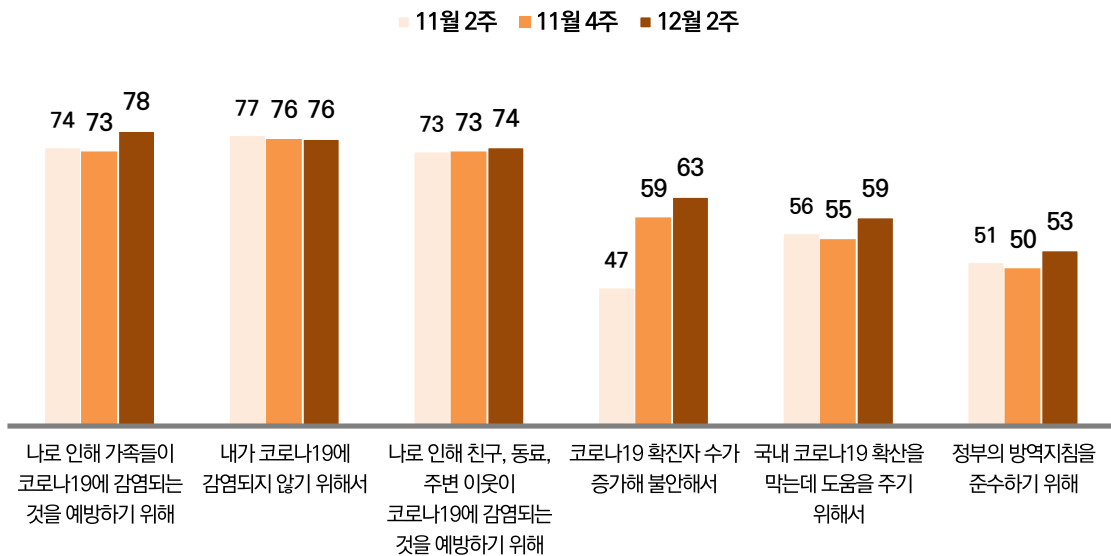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on.co.kr)

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유와 중요도 면에서 일치한다. 나와 가족, 주변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0%대로 지난 조사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. 반면 ‘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’, ‘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’라는 응답은 50%대에 머물렀다. ‘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해 불안해서’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에 비해 4%포인트 증가하면서 꾸준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.

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

(단위 : %)

코로나19로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다수



질문: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
비고: 중복응답

응답자 수: 1,000명

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(hrcopinion.co.kr)

조사개요

구 분	내 용
모집단	•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
표집틀	•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(20년 11월 기준 약 54만 명)
표집방법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할당추출
표본크기	• 1,000명
표본오차	•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$\pm 3.1\%p$
조사방법	• 웹조사(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)
가중치 부여방식	•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림가중) (2019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응답율	• 조사요청 7,208명, 조사참여 1,325명, 조사완료 1,000명 (요청대비 13.9%, 참여대비 75.5%)
조사일시	• 2020년 12월 11일 ~ 12월 14일
조사기관	• (주)한국리서치(대표이사 노익상)

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

여론속의 여輿론論

HankookResearch

